

총장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 공개

제주대학교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 마련

앞으로 총장 업무추진비, 회계에 결산, 인사 발령 사항 등 제주대학교의 75개 행정정보가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된다.

제주대는 6일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열린 대학행정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산 현황, 학문분

야 평가 등 외부기관 평가, 연구소 및 부속시설 평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대학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 대학교조개혁 등 75개 행정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지침안은 이와 함께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마다 별도의 정보공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토록 했다.

이들 정보는 업무특성에 따라 연 1회~매월 1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물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우선 대학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행정정보 공표목록 내용을 공개시기에 맞춰 게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2007학년도 858명 수시 모집 실시

방문접수·인터넷 접수 오는 21일까지

제주대가 2007학년도 신입생 수시 2학기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수시모집은 △취업자 22명 △만학도 38명 △예능 특기자 19명 △실업고 출신자 55명 △학교장 추천자 146명 △탐입교사 추천자 326명 △특정교과목우수자 111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32명 △실업고 출신자 67명 △특수교육대상자 42명으로 총 858명이다.

이번 수시모집은 지난 2006학년도 수시모집과 다르게 사회봉사전형이 없어지고 학교장추천자전형

으로 통합됐다.

또한 청각 장애인, 지체 부자유 장애인에 제한을 두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제한을 없애 특수교육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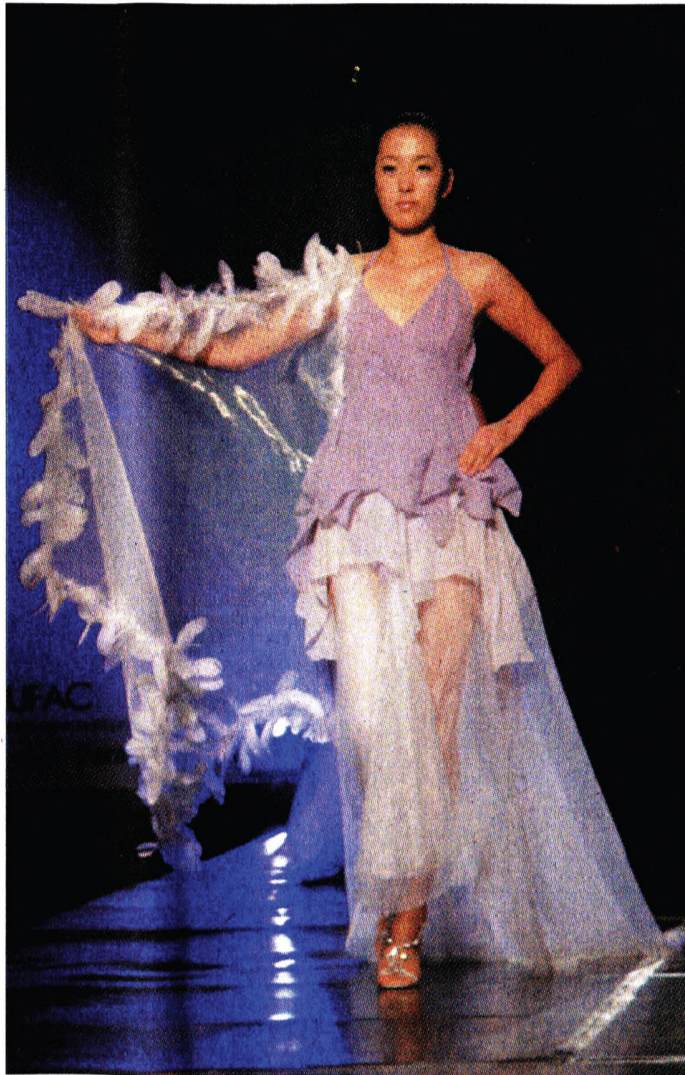
원서교부는 오는 21일까지 제주대 정문 수위실 및 지정 교부처에서 이뤄지며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cheju.ac.kr)에서도 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본교 체육관에서 이뤄지며 인터넷접수

는 오는 19일 9시부터 21일 12시까지다. 이번 수시모집 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수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전형총점 1000점에서 음악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학생부 100% 반영을 기준으로 한다. 음악학과는 오는 10월 20일 음악관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하며 학생부 30%, 실기고사 성적 70%의 비율로 성적반영이 이뤄진다.

김지은 기자 jieun3412@cheju.ac.kr



'서랍을 열다'

지난 10일 열린 '제9회 의류학과 졸업작품전'에서 대학생 모델이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

이경주 기자 rudwn1421@cheju.ac.kr

강승문·오은미 동문 회계사 최종합격



강승문



오은미

강승문(회계 02졸), 오은미(회계 02졸)씨가 '2006년도 공인회계사'에 최종 합격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6일 발표

한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1007명 중 제주대 동문 2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2년도에 동시에 졸업했다.

송필순 석좌교수 형질전환 잔디 특허

성장 더더 일손 덜 가는 잔디 개발



송필순 석좌교수가 형질전환 잔디를 만지고 있다.

송필순(생명공학부) 석좌교수가 일반잔디에 비해 덜 자라고, 잔디 깎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형질전환 잔디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송필순 교수를 비롯해 이효연(생명공학부) 교수, 전남대 김정일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성장속도가 더디면서도 초록빛이 강한 형질전환 잔디를 개발해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송 교수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지난달 23~25일 이틀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2006 국제 식물 분자생물학 회의'에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개발한 형질전환 잔디는 물과 비료를 덜 줘도 되고 보통

잔디보다 제조제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잔디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었던 세계의 각 가정은 물론이고 골프장, 공원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교수는 "지금 시험포장에서 연구를 하는 단계지만 점차 잔디의 양을 늘려 연구해 나갈 것"이라며 "서귀포와 공동개발을 하고 있는데 잔디는 성장 속도를 줄이는 대신 번식력은 기존 잔디의 2.5배 정도 빠르다"고 말했다.

한편 송 교수팀은 신종잔디는 포장시험을 거친 후 2009년 내로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실 기자 oheunsil@cheju.ac.kr

제27회 영어말하기 대회 22일 개최

'제27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언론출판센터(주간 이창익 일일문교수) 영자신문사 주최로 오는 22일 오후 3시 공과대학 C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후학생과 해외체류 경험이 2년 이상인 자를 제외한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15일까지며 원서는 각 학교 공문을 통해 발송된

원서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오는 16일 예선을 거쳐 합격한 학생은 22일에 본선을 치르게 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15일 특강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오는 15일 오후 3시 법정대 중강당에서 '세계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매주 화·목요일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수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우리의 대표 브랜드 - 삼성

요주의 인물 #2. 오승환

1982년 생, 2004년 22살 전라대학교야구부 최고 투수 선수로, 2005년 23살, 삼성라이온즈 입단 / 한국시리즈 MVP / 포로야구 통구리 신인상, 2009년 24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대표 투수

내 자 신 을
이 겨 야
팀 이 이 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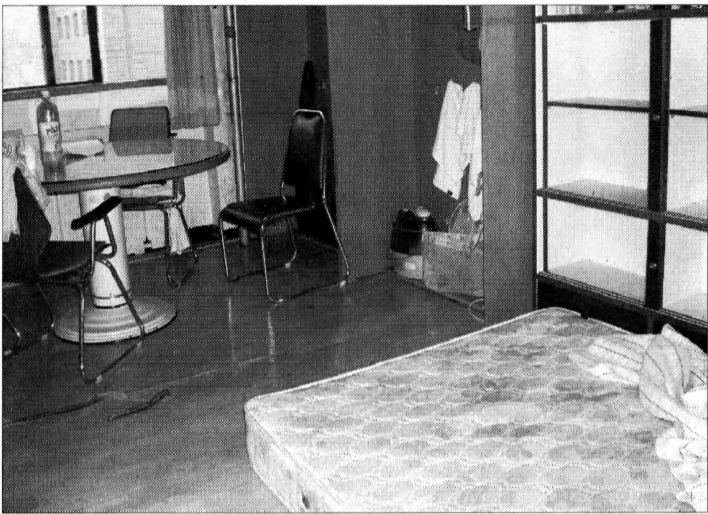
스물 네 살의 오승환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당장 메이저 리그에서 뛰어도 통할 선수',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기계, 그도 사람인데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건 아닐 테지... 현대 안터를 맞든 점수를 주든 얼굴 근육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돌부처라는 별명이 딱 어울릴 수 밖에. 젊음에, 힘에, 독심까지- 대체 그가 던지는 공의 끝은 어디까지 일지. 그 끝을 볼 수나 있을 지 오리무중이다. 오승환, 이 괴력을 가진 야구선수를 요주의 인물로 점 찍는다. 젊음은 열정이 있어 아름답다.

YOUNG SAMSUNG

당신 열정의 지지자 SAMSUNG 삼성

단과대 과제 독서실 관리 미비로 '눈살'

활용 안돼 방치 ... 자연대·사범대는 운영 잘 돼



정리정돈이 안된 공과대 과제독서실

단과대·학과별로 마련 돼 있는 과제독서실 중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독서실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부터 기술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과대학

에서 운영했던 독서실 기술고시실이 없어지면서 그 후 공과대학 전체 과제독서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과제독서실은 이전 고시실에서 쓰여졌던 물품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심지어 침대매

트리스까지 그대로 놓여져 있어 잠만 자고 가는 학생들 또한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 공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중앙도서관처럼 자리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24시간 개방해 놓기 때문에 과제독서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전체가 쓸 수 있어야 하는 독서실인데 한 과만 집중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개인독서실처럼 이용하니까 마땅히 들어가서 공부할 자리가 없다"며 "또 독서실 안에 옷이나 개인용품들이 방치돼 있어 불쾌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룸관 과제독서실인 곳도 있었다. 해양과학대학 1호관에 있는 과제독서실의 경우 깨끗한 과제독서실이라고 적혀

을 뿐 현재 해양산업공학전공 과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산업공학전공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제독서실을 소홀하게 사용하다보니 과방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양학과 과방이 과제독서실로 해양과학대학 안내도에 잘못 표기돼 있었다.

반면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과제독서실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학생회 홈페이지 또는 학생회실에 찾아와주라는 안내문이 과제독서실 문 앞에 게시돼 있다.

이와 함께 사범대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리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자리점검을 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정기자리점검을 하고 있다.

김화영 기자 kimhy@cheju.ac.kr

대학 시설물

사용료 지침 제정

대학 강의실, 세미나실, 전산실, 체육관 등 대학 시설물에 대해 요금을 받는다.

제주대는 11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공공요금 부담에 대비, 건전재정 마련을 위해 대학시설물 사용료 징수 지침을 마련,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실 이용료는 4시간 기준 2만원, 세미나실·전산실·어학실습실 3만원, 중강당 5만원, 체육관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시설물을 외부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단과대학이나 해당 부서에 소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라딘스

오능희 동문 19일 독창회



'제3회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가 오는 19일 7시 30분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독창회 피아노 연주는 제주출신 피아니스트 신희은 씨가 맡아 자리를 빛낸다.

공연 작품은 '집시' '집시의 노래' '나는 이제 멀리 떠나야 해' '달의 노래'의 3곡이다.

한편 오능희씨는 음악학과 92학번으로 졸업하고 현재 음악학과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2006년도 우수 공무원' 선발

제주대가 '2006년도 제주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올해 제주대를 빛낸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이번 선발은 4급 이하의 일반직·연구직·별정직·기능

직·기성회직을 선발대상으로 한다. 제안·창안, 우수혁신, 친절봉사, 발전기금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선발될 8명은 총장표창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추천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모의토익 및 경시대회 29일 개최

'모의 토익 및 경시대회'가 외국어교육관 주최로 오는 29일 외국어교육관에서 열린다. 모의토익은 제주대 학생 및 일반인 2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경시대회는 모의토익

응시자 중 제주대 학부생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외국어교육관에서 접수를 받으며 경시대회 우수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조교 근평 '복수평가제' 실시

이달부터 단과대학 조교나 총장 직속 부속시설 조교들은 학부(과)장과 학장 또는 부속 시설의 장과 대학원장으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조교 근무실적 평가 시행세칙(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종전 학부(과)장과 부속시설 장 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복수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조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자제·추진실적·학생 지도·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학부(과) 및 부속시설의 평가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차등평가가 이뤄진다.

대학은 이같은 방식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연구보조비 지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범대 '방과후 학교' 참여

사범대학 학생들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와 체결한 교류협약에 따라 도내 4개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사범대학 학생 16명을 지도교사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비교사들은 오는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활동,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특별보충과정 지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미술학과 93학번 동기 전시회

미술학과 93학번 동기생들이 13~17일 학생문화원에서 '10년 전 약속 전시회'를 연다. 조소를 전공한 이들은 10년

후 전시회를 함께 열자고 기약해 지난 2004년 10월 처음으로 '10년 전 약속 전시회'를 열었고 올해 2번째 전시회를 갖게 됐다.

식품영양학과, 일본 조리전문대와 교류



식품영양학과(학과장 신동범 교수)와 일본 효고영양조리과학전문학교(교장 오오무라 도쿠미)는 지난 5일 자연대에서 한·일 식문화 교류 행사를 가졌다.

윤창훈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한국요리, 오후에는 일본요리 시연 및 시식행사가 열렸다.

'한국요리 시연회에서는 궁중잡채, 너비아니구이, 화전

등을 만들었고 일본요리 시연회에서는 스시, 다코야끼, 참살찌구이 등을 만들어 한·일 대학생들끼리 식문화 교류했다.

윤창훈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한국요리, 오후에는 일본요리 시연 및 시식행사가 열렸다. '한국요리 시연회에서는 궁중잡채, 너비아니구이, 화전

◆ U-캠퍼스 1년 과제와 전망

휴대전화로 학사업무·전자태그로 출입인증

완전 정착 위해 예산 확보 절실

제주대가 KT와 U-캠퍼스 기반 구축을 통한 협정을 체결하고 모바일 캠퍼스로의 변화를 위한 지약 1년이 지났다.

현재 제주대는 무선인터넷 설치와 학생생활관의 RFID 시스템의 이용으로 U-캠퍼스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U-캠퍼스란 유비쿼터스(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캠퍼스를 말한다. 무선인터넷, 학사 및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등 캠퍼스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생활관은 RFI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여기서 'RFID'란 무선으로 고유 ID를 식별하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로, 이 기술을 이용한 13.56MHz(근거리 인식기능) 전자태그를 학생증 및 핸드폰, 출입증 등에 내장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교내 시설물에 부착된 인식기를 통해 인식토록 하

는 것이다. 학생생활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매번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 출입통제뿐만 아니라 식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KT와 협정을 맺은 뒤 무선 인터넷이 지난 1월부터 이용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캠퍼스 내에 AP 및 관련 망 시설이 설치돼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ID는 학내 ID 500개, 광역 ID 300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신청한 ID 수는 학내 ID 130개, 광역 ID 116개로 학생들의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D 신청 방법은 제주대 홈페이지에 있는 U-캠퍼스 무선 ID신청란에 들어가 가입만 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청방법을 몰라서 ID를 신청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대는 AP 및 관련 망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로 매월

약 440만원의 돈을 내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ID 수는 학생들의 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되고 있다.

그러나 U-캠퍼스 구축에 있어 서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보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들은 입력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정보도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U-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원 김경희 정보통신담당자는 "U-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부족해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이미 실현된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한다면 U-캠퍼스로 다가가는 길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rudwin1421@cheju.ac.kr

카메라 고발



이건 아니잖아

교양동 뒤편 주차장에 있는 농구대 앞에 차량서행 표지판이 우뚝서 놓여져 있어 농구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오은실 기자 cheunsi@cheju.ac.kr

단과대 축제 개막

홍향제 13일 · 파랑제 20일

뜨거운 여름 방학을 달군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실을 맺는다. 제주대가 오는 중여중문화에서 주최하는 '홍향제'를 시작으로 학내 곳곳에서 단과대 축제를 연다.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중여중문화과의 '홍향제'는 첫째날 △고사 및 길트기 △중국어말하기대회 △고사상어대회 및 중국물품 판매 전시를 진행하고 둘째날 법정대 중강당에서 △중문가성 △성우 따라잡기(타잔) △원어연극(염기적인 그녀) 등을 선보인다.

첫날 열리는 '제11회 전도 초·중·고등학교 중국어말하기대회'는 중국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모아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달 26일 예선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중국어 말하기를 겨루게 된다.

일어일본학과 주최로 열리는 '파랑제' 또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일 열리는 영화제 '스윙걸즈' 상영을 시작으로 △일본문화체험(한라대) △애니메이션 더빙과 21일 △영화제 '도쿄타워' △일본문화체험(한라대) △가요제 △연극제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

일본문화체험에서는 대표적인 일본음식인 '다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맛볼 수 있는 일본음식 체험코너와 일본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놀이인 '금붕어 잡기 놀이'가 준비될 예정이다.

일본문화체험에서는 대표적인 일본음식인 '다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맛볼 수 있는 일본음식 체험코너와 일본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놀이인 '금붕어 잡기 놀이'가 준비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ujin0104@cheju.ac.kr

언론출판센터 신간 출판 '속속'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등 4권

언론출판센터(주관 이창익 일어일본 교수)가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산수미학탐구', '실용영문법해설(1)'을 발간했다.

손영수(의학과) 교수와 김향미(소설예방법학연구소) 소장이 공저한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는 의·생명과학분야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및 유전체 연구, 인공수태술, 인공임신조절, 장기이식, 인간생체실험, 임종과 안락사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생명과학분야인 만큼 이에 따른 법·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는 벤자민 발렌티노의 작품을

장원석(정치외교) 교수와 허준호(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옮겨 새롭게 출판했다.

이 책은 지음이 발렌티노가 '대규모 비전투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정의한 대량학살을 제2차 4·3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수(국어교육) 교수가 저서한 '산수미학탐구'는 산수문화의 기본 개념과 시가이론의 핵심적인 문제를 주제로 이론체계를 시도했다. 산수시가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시가미학이론을 탐구하고 고전시가이론의 개념을 분석해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검증을 했다.

고경환(영어영문) 교수가 개정증보한 '실용영문법해설(1)'은 영어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

어활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책은 개정 증보판인 만큼 내용을 보강해 독자들의 영어 고급증을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전선희 기자 sun@cheju.ac.kr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캠퍼스

11일 총여학생회, 제1회 아라여성축제 개최



멋진 남자·멋진 여자 콘테스트에서 출연 학생이 끼를 뽐내고 있다.

제1회 아라여성축제 'Happy Together'가 총여학생회(회장 조소영 가정관리4) 주최로 지난 11일 한라터를 중심으로 열렸다. 남성과 여성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회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해피데이 파쿠대회'를 시작으로 성교육 강좌, O·X 퀴즈대회, 멋진 남자·멋진 여자 콘테스트, 율령찾집, 네일아트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졌다. 특히 '성(性)'을 주제로 한 성교육 강좌와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캠퍼스' 등 올바른 성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는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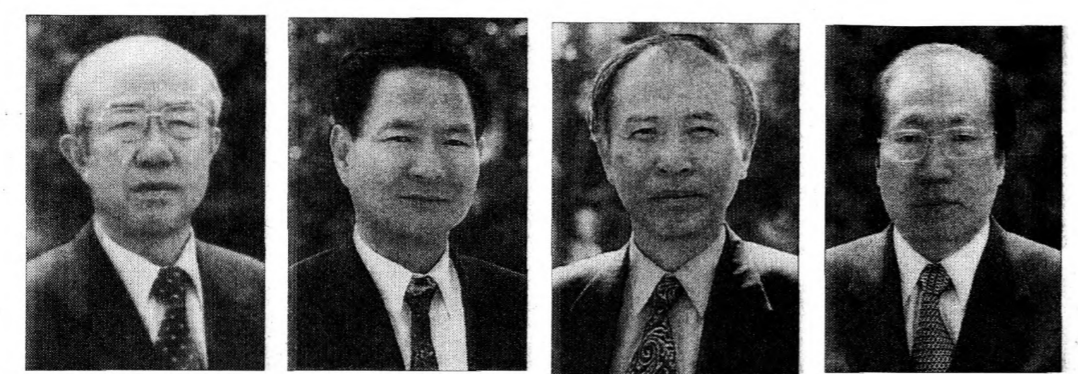
강좌는 구성애(아우성 소장)씨를 초청해 '그 남자, 그 여자의 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솔직담백한 강의를 펼쳤다. 이번 강의는 법정대 중강당 약 300석을 가득 메우고 자리가 모자라는 등 남·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엿보였다. 또한 건강증진센터(소장 김문두 의학과 교수)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서는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캠퍼스'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생리대와 타수, 호신용 호르라기 약 500개, 콘돔 약 1000개 등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콘돔을 나눠 준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외에 생리주기표를 나눠주거나 성희롱·성폭력·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건강증진센터 조매경(간호사)씨는 "학생들에게 성은 이론보다 실천으로 접해보는 것이 더 좋아 콘돔도 나눠주고 인체 모형도 접하게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성에 대해 개방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이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무조건 알려주고 주입시키는 성 지식이 아닌 직접 접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형식의 행사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제주대 홍보 도우미를 뽑

는 '멋진 남자·멋진 여자 콘테스트'가 열렸다. 학생들이 참여해 홍보 도우미를 뽑는 일은 처음이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컸다. 총 8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와 춤을 통해 자신의 끼를 펼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홍보 도우미인 만큼 학교 지식에 대한 퀴즈를 풀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임상비 학생처장을 비롯해 이재훈 학생과장, 홍보협력팀,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등 총 8명의 심사위원이 학교에 대한 애정도, 재치와 순발력, 매력 발산도, 관객 호응도, 인관지수 등을 선발 기준으로 홍보 도우미를 뽑았다. 그 결과 멋진 여자는 현호주(영문 2), 멋진 남자에는 홍상표(영문 2)가 뽑혀 홍보 도우미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조경희(언문홍보 2) 학생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다"며 "그러나 몇 가지 프로그램 외에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아 홍보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여학생회 조소영 회장은 "두 달이 넘도록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남·여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있어 기뻐다"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내용은 좋았지만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축제가 개최돼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점과 안내책자가 지나치게 상업적인 점 등은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고재건·유장걸·김희석·오윤근 교수 정년퇴임

교육공무원 정년퇴임식 행사가 지난달 31일 제주대 법정대학 중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년퇴임하는 교수는 고재건(경영학과), 유장걸(생명공학부), 김희석(수의학과), 오윤근(해양학과) 교수로 총 4명이다. 고재건 교수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 1980년부터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었다.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26년간 재직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경영학과장, 경영대학원장, 대학원 위원회 위원, 대학 평의회 평의원 등 학내보직을 역임했다. 유장걸 교수는 서울대 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부터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0여년을 재직하며 한



좌로부터 고재건, 유장걸, 김희석, 오윤근 교수 사진

국원지력발전기술원 제주지방방사능측정소장, 제주대 방사능이용연구소장, 아열대농업산업연구소장, 생명자원과학장 등을 역임했다. 김희석 교수는 제주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과과정위원회위원, 인사위원회위원, 일반장계위원회위원, 수의학과장, 부설 동물병원장,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연구원 등 학내보직을 거쳤다. 오윤근 교수는 진주교와 부산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도부터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년여 동안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교수처장, 환경연구소장, 한국환경과학회와 한국영향평가학회 부회장, 환경관련 11개 학회 창립회원, 평의원 이사를 역임했다. 김수진 기자 sujin0104@cheju.ac.kr

체육학부, 서울올림픽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일주



'88 서울올림픽 제18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가 체육학부 주관으로 지난 7일~8일 이틀간 도내 일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체육관을 출발해 1박 2일간의 일정 동안 하귀, 중문, 표선 등을 거쳐 신산공원에 도착해 폐회식을 가졌다. '88올림픽의 성화 첫 기차기로서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기회'라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체육학부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류재정(체육학부장)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 행사가 체육학부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학교 나아가 우리고장의 행사로 발전해 제주 체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학과는 서울 올림픽부터 매년 해마다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일주를 실시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jieun3412@cheju.ac.kr

신임 의과대 학장 인터뷰 | 이창현 교수

병원신축·의학전문대학원 시행에 만전



이창현(의학과) 교수

의과대학 이창현(의학과) 교수가 제6대 의과대학장에 당선됐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의과대학 장선거에서 유권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현 교수가 37표(53%)를 획득했다. -취임소감 먼저 의과대학장에 당선돼 영광이다. 할 일이 많아 책임감이 크고 어깨가 무겁다. -임기 중 추진할 사업 현재 의학교과과정을 검토·보완해 올해 말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정착을 위해 건물 착공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외 대학 중 의과대가 있는 대학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한다.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하고 교수님들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류대학에서 교과목을 받는 일렉트 코스를 접목시키는 등 대학간 교류를 활발히 할 계획이다. 남에게 배울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는 의사가 지녀야 할 덕목 중 하나이다. 현재 몇 개의 교과목이 있지만 인문사회학의 통합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참된 인성을 갖추기 위한 연속특강 등 방법을 개척할 것이다. 공부만 잘하기 보다는 기본 필뎀을 갖추는 교육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2008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도록 건물 착공이 시급하다. 의과대학 건물이 비좁아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제주대병원

에 있는 만큼 건물을 빨리 준공해 의학전문대 체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완공될 예정인 제주대병원도 시일을 앞당겼으면 한다. 제주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같이 가야 할 것이다. 의과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전환된 대학에 있었던 착오나 문제점을 교차하면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과대학을 비교해 보면 의료문제에 있어서 진료, 학생 수준 등을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은 있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후발주자로 제주대 의과대학이 나서긴 했으나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도와주고 노력한 탓에 자리를 잡았다. 아직도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 화합실을 항상 열어둘 것이다. 문을 열고 몸과 마음을 열어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신임 경영사업단장 인터뷰 | 홍성철 교수

발전기금 조성 사업에 총력



홍성철(의학과) 교수

-취임 소감 경영사업단은 기성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영사업단의 역할 경영사업단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곳이고 동시에 조성된 발전기금을 잘 활용해 나가는 곳이다. 제주대 발전기금은 사업형발전기금, 목적형발전기금, 소액발전기금이 있고 기부자가 제시한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 사업형발전기금은 박물관·문

화관·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재일본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쓰이며 목적형발전기금은 교육·연구 부문에 목적을 특정 기부하는 기금으로 특정 교수와 학과 및 대학에 기부할 수 있다. 소액발전기금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의 이용금액 중 0.5%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일 수 있다. 또 제주사랑 체크카드의 이용료 중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온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대부분 발전기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형편 없이 적다. 그래서 제주대는 폴로아카데미를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제주대의 발전기금의 기동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대가 발전기금 시스템이 좋은 곳으로 나타나면서 금오공대에서 폴로아카데미를 벤치마케팅하러 방문한 적도 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서귀포연수원과 국제교류회관도 수익사업 방향으로 바꿔 조금씩

개선되고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발전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추진된다. -마지막 당부말 제주대의 발전이 나아가 제주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동문, 도민 더 나아가 제주도도 고향인 분들의 지원을 통해 학교발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더 나아가 제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대학생이 약 1만 명인데 소액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을 뒤 학생들의 조그만 모금으로 인해 제주대의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또 제주대 발전후원의 집을 이용해 제주대 발전기금 혜택을 더욱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강은정 기자 kangje@cheju.ac.kr

'WISE IT-멘토링 워크숍' 8일 열려

WISE 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 개최

IT 분야의 이공계 여학생들을 위한 'WISE IT-멘토링 워크숍'이 지난 8일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됐다. WISE 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이공계열 전문직 진출을 어려워하는 이공계열 여학생들을 위해 IT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초빙해 진로선택 및 취업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경순(애월중학교 교사) IT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 분야 ▲안연주(NCSort 과장) '면접을 볼 때 필요한 기본 사항' ▲정윤경(다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개발팀 사원) 'IT 진로와 취업' ▲오세진(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Who knows NEXT' ▲양정혜(LG CNS 기술서비스부문S/W아키텍처팀 대리) '여성 IT과워'에 대한 강연과 선배와의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에는 자기 관심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YES와 NO를 확실하게 대답하라", "회사의 특성과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

고 가라", "자신을 PR할 수 있는 미니홈피를 만들어라", "모르는 것을 선불리 아는 척 하지 마라",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라" 등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와 당부가 제시됐다. 송왕철(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여학생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미 많은 여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다"며 "전공을 실려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ujin0104@cheju.ac.kr

◇ 누리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⑤ 제주문화콘텐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제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경영학과 · 사학과 등 8개 학과 참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이 진행중인 가운데 본지는 5차례에 걸쳐 제주대 5개 사업단을 점검한다.

대형사업인 '아열대 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인력양성 사업단'을 시작으로 '친환경 해양산업 뉴프론티어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단',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사업단',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순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을 했다.

또 지난 2005년 11월 26일부터 이틀간 남읍 휘트니스타운에서 성공적인 취업전략 교육을 위한 취업 캠프를 진행했다. 약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과 시테크 전략, 창조적 인간관계 등 취업을 대비한 생애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취업과 직업의 세계'라는 과목을 계열학기에 신설해 운영하고 통합적인 취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문화 콘텐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취업은 모든 학생들의 고민인 만큼 누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은 실무경험을 중요시하는 현장실습 및 현장 적응력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비전과 방향



문화콘텐츠사업단이 지난 5월23일부터 이틀간 제주대 체육관에서 '2006년 제주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을 열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 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제주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하는데 가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 자원을 보존,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작해 비즈니스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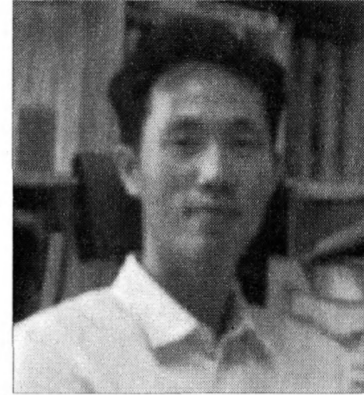
김성백(컴퓨터 교육과) 부단장은 "사업단에서 제주문화콘텐츠를 담당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그래서 제주 문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실 기자 cheunil@cheju.ac.kr

◇ 인터뷰 - 김성백(컴퓨터 교육과) 부단장

양질의 취업 위해 최선

3단계 로드맵 따라 사업 진행



- 학생들의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안은

누리 사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핵심 지표 중의 하나가 취업률의 제고이다. 문화콘텐츠 사업단은 1차년도 여러 가지 취업 촉진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 정량적 목표로 설정한 취업률을 초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정성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취업은 전체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이차년도에도 1차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인 산학연과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산학 공동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창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현재 누리사업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존 사업단에 비해 1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1년 빨리 시작한 타 사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고 우수인재유치 등에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문화콘텐츠누리사업단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나 전공이 여러 단과 대학에 흩어져 있다.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과간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 전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구성이 특정 학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누리 사업은 학부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누리 사업에 참여해 남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한다. 문화 콘텐츠 누리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인 누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 홈페이지를 늘 접근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각 사업에 최대한 참여했으면 한다. 제주의 미래는 문화 산업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오은실 기자 cheunil@cheju.ac.kr

-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콘텐츠 누리사업단의 사업은 우수인재 유치 및 인재 양성, 특화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체계화, 산학연관 클러스터 운영 강화 및 활성화, 지역혁신 주체와의 교류 협력 강화 및 활성화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핵심 사업으로는 연계 전공 체계화 및 활성화, 글로벌문화콘텐츠 사례조사, 협동프로젝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문화콘텐츠경진대회, 문화콘텐츠 페스티벌,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강화 및 활성화, 문화콘텐츠 체험관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 문화콘텐츠 사업이 2차년도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의 누리사업 계획은

문화콘텐츠 사업단은 연차별 로드맵을 혁신, 성장, 도약 3단계로 마련하였다. 1차년도에는 혁신 단계로 기반 구축을 주로 하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성장 단계로 교육과정 운영, 지역 혁신 주체와의 교류 및 협력 등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년도에는 성장 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사업단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1차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내용 측면에서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또한 1차년도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어학교육, 협동프로젝트, 글로벌 문화콘텐츠 사례조사 등 중점 사업들 간의 상호 연계 시너지효과로 전체적인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인재양성 사업

제주지역의 미래 전략 사업인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때문에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문화콘텐츠 관련 연계전공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문화교류, 생대문화콘텐츠 아카데미 등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연계전공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28개 연계전공이 신설돼 있으며 소속 학생들은 39학점을 이수할 경우 '문화콘텐츠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특히, 연계전공의 핵심인 협동프로젝트 수업은 참여 학생들이 팀을 구성 각 지도교수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교육과정이다. 지난 학기에는 100명의 학생과 18명의 지도교수가 24개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성과물을 '2006 제주문화콘텐츠 페스티벌'에 전시하기도 했다.

문화콘텐츠 누리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협동프로젝트 성과물들은 각종 공모전과 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실적들이 있다"며 "그만큼 협동 프로젝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화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2학기 협동프로젝트에는 66명의 학생과 16명의 지도교수가 14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협동프로젝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신효주(사학과 2) 학생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협동프로젝트에 참여해 잠재된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며 "제주의 숨겨진 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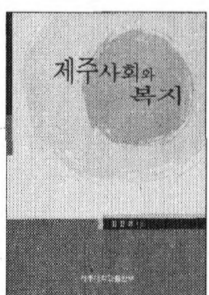
◆취업 경쟁력 강화

요즘 '바늘귀에 실 꿰기'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문 통과다. 따라서 제주문화콘텐츠사업단은 소속학생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차년도에 약 45명의 학생들이 22개의 산업체에서 2주~2달간 산학협동 문화콘텐츠 현장실습

출판부 신간 도서 안내

제주사회와 복지



김진영 저
2006/신국판/
328면/
정가: 10,000원

개방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유례없이 확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사회도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제주사회가 안정적인 공동체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대안산업의 정착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1부 제주사회와 복지,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복지분야 발전계획 사례를 담아 제주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구축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절박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실용영문법해설(1)



고경환 저
2006/크리온판/
478면/
정가: 15,500원

세계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자료를 쉽게 접하고, 그것을 지식이나 상식으로 삼고자 한다면 영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자는 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내용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회화·작문·독해 능력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한다.

문법 사항 하나 하나를 충실히 익힘으로써 영어의 참맛을 느끼면서, 동시에 필요한 영어 활용 능력을 갖추어 나가 결국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영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영문법의 지침서이다.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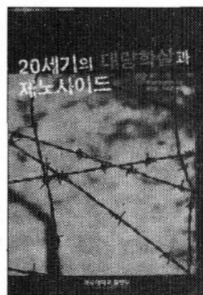


김현미, 손영구 공저
2006/신국판/
294면/
정가: 9,000원

의학은 다른 생명과학분야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생명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세계적 경쟁으로 인해 오늘날의 생명공학은 자연이나 동·식물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을 직접대상으로 하여 인간생명에 위협과 희생을 초래하는 한계적 연구를 통해 국부와 경제적 성과를 이루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책은 의·생명과학분야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장관, 줄기세포 및 유전체 연구, 인공수태술, 인공임신증절 등에 관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윤리적 문제점들을 조망해 봄으로써 현행 인간적 자기이해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벤자민 발렌티노 지음
장원석, 허호준 옮김
2006/신국판/
448면/
정가: 15,000원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책은 20세기에 벌어진 대량학살의 사례들을 추적해 이론화하며 지도자들이 대량학살을 모략하는 3가지 동기를 △ 사회의 급진적 공산화 추구 △ 정권의 대규모 인종청소 정책 추구 △ 게릴라 반군을 소탕하려는 정권의 전략 추구 등을 들었다. '제노사이드'라는 정의가 지닌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저자는 대량학살을 "대규모의 비전투원(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정의했다.

산수미학탐구



손오구 저
2006/중보판/
416면/
정가: 13,000원

'산수를 노래한다'는 것은 소재의 다양성과 정서적 함양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조선조 사림의 산수생활에는 시가와 학문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림이 지향하는 이상적 삶은 그 완전성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 산수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철학적 대상을 그 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자연과 인간의 근원, 유래 그리고 삶의 정당성과 목적 등,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반성적 자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책은 저자의 총 16편의 연구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수문화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시가이론의 핵심적 문제들을 제목으로 하여 이론적 체계를 시도하였고, 사적적 해석도 거의 전무한 고전시가이론의 개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검증도 하였다.

사라져가는 도대불

100년 안 된 도대불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실태 파악 '감감'

최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연유산 등재에 지역사회가 들쭉이고 있다. 그러나 관심 밖에서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대불'이다.

도대불은 전기가 보급되기 전 제주에서 마을 단위로 관리했던 등대로 밤에 조업을 나간 배를 유도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길을 밝히는 대'와 일본식 발음 '도우다'에서 파생했다는 설, 높이 솟아있다고 '돛대'에서 도대불로 불려졌다는 등 여러 어원이 남아있다.

각 마을마다 원뿔·원통·사다리꼴 등 형태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도대불은 해안도로공사, 포구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보존과 개발의 갈등상황에서 도대불의 모습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23~24일 양일간 9개 도대불을 취재했다. 그 중 제주시 용담동과 제주시 신촌리의 도대불 2개는 사라져 버렸고, 애월리와 두모리의 도대불은 새로 복원된 상태였다.

없어져버린 도대불 중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대불 자리에는 구름다리(큰물교)가 세워져 있었다. 이 곳 마을 주민인 60대의 한 할아버지는 "구름다리가 없다면 누가 이 동네에 놀러왔나"며 "도대불이 없어진 것이 아쉽기 하지만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 도대불' 저자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장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 이라서 안타깝다"며 "옛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반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녕리 도대불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도대불 주변에 천막을 치어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도대불을 문화재가 아닌 일상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질 뻔한 도대불을 복원시킨 경우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에 사는 50대의 김은일 씨는 아직도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3년 전, 군청에서 길을 만들면서 도대불을 없앴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항의해 사라질 뻔한 도대불을 복원시켰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도대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의 힘으로 문화재를 살려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장은 "10여 년 전, 도대불 책을 내기 위해 이곳 동네 사람들을 취재했었는데 지금 와서 김은일씨의 얘기를 들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복원된 애월읍 애월리 도대불은 원래 형태가 없어져 버리고 복원된 모습만 남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대불이 모두 몇 개가 남아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담당자는 "도대불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도대불이 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아직 문화재법률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시기상 100여 년이 넘어야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유산들은 도대불 뿐만이 아니다. 방사탑, 원, 불터(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곳) 등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 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20개도 채 안 됐던 도대불이 지금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50년이 흐른 후 도대불을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때 남아있는 도대불은 몇 개나 될까.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김화영 기자 kimhy@cheju.ac.kr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장

제주의 자연문화 소중히 다뤄져야



〈매해 제주대 학생을 1년 간 초청하고 있는 무리바야시 장학재단 이사장인 '제주의 도대불' 저자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장과 동행취재를 하며 도대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왔다.〉

- 도대불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주는 섬 사회다. 섬 사회에서는 어업이 발달해있는데 그중에서도 야간어업이 성행했다.

그렇다면 등대가 없던 시절 옛 조상들은 어떻게 포구를 찾아 들어왔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도대불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도대불과 관련한 서적들이 별로 없어 10여 년 전 도대불이 있는 마을을 찾아 그 곳 주민들을 취재했다.

그렇게 해서 1994~1997년 모두 17개의 도대불을 찾게 됐다.

- 도대불은 어떻게 이용되었나.

도대불은 상자·원뿔·원통·사다리꼴 등의 형태를 변형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전기가 마을에 보급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했다.

그 중 나무를 잘게 잘라 말린 솔각, 송진, 생선의 내장을 썩혀 만든 구린지를, 볶거나 상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 짜낸 기름, 근대에 이르러 석유와 카바이트 등이 사용됐다.

또 각 마을마다 운영하는 방법도 달랐다.

당시 '불치'이라 불렀던 등대지기는 밤의 어업을 나간 어부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마을에서 책임감이 강한 어른이 맡았다.

이렇게 불치하고 난 댓가로 그 날 잡힌 어류 중 가장 좋은 최상급 물고기 2~3마리 또는 돈으로 일당을 줬다고 한다.

- 새로 복원된 애월읍 애월리 도대불에 대한 생각은.

옛날의 도대불과 비슷하게 복원되기는 했으나 예전에 있던 도대불이 사라져 안타깝다.

마을 주민들이 도대불을 소중한 문화재로 여기고 복원시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 도대불의 문화적 가치는.

'온고지신'의 정신없이 무조건적인 개발로 인해 도대불과 같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조상들의 자취인데 안내표지 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대불은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의 생활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재로서 아주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김화영 기자 kimhy@cheju.ac.kr

2006 JLPT 일본어 능력시험

2006년 JLPT일본어능력시험 안내

■ 시험 일 :

2006년 12월 3일(일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제주상공회의소

(우)690-029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블럭 1롯데

☎ (064)757-2164~6

■ 접수기간 :

2006년 8월 28일(월)~9월15일(금) 09:30~17:30

※ 단, 토·일요일 / 공휴일은 휴무, 우편접수는 9월 15일 소인까지 유효

■ 수험료 :

- 일반성적통지자 - 32,000원 (1, 2, 3, 4급)
- 빠른성적통지자 - 40,000원 (1, 2, 3, 4급)

■ 준비물 : 사진 1매(3×4cm)

■ 주 최 :

- 동경 / 日本國際交流基金 日本國際教育支援協會
- 서울 / JLPT日本語能力試験 서울實施委員會
- 부산 /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 제주 / 제주상공회의소

■ 협 찬 : 日本語ジャーナル
사람 in 커뮤니케이션

동양문고
일본어 교육의 정상
시사일본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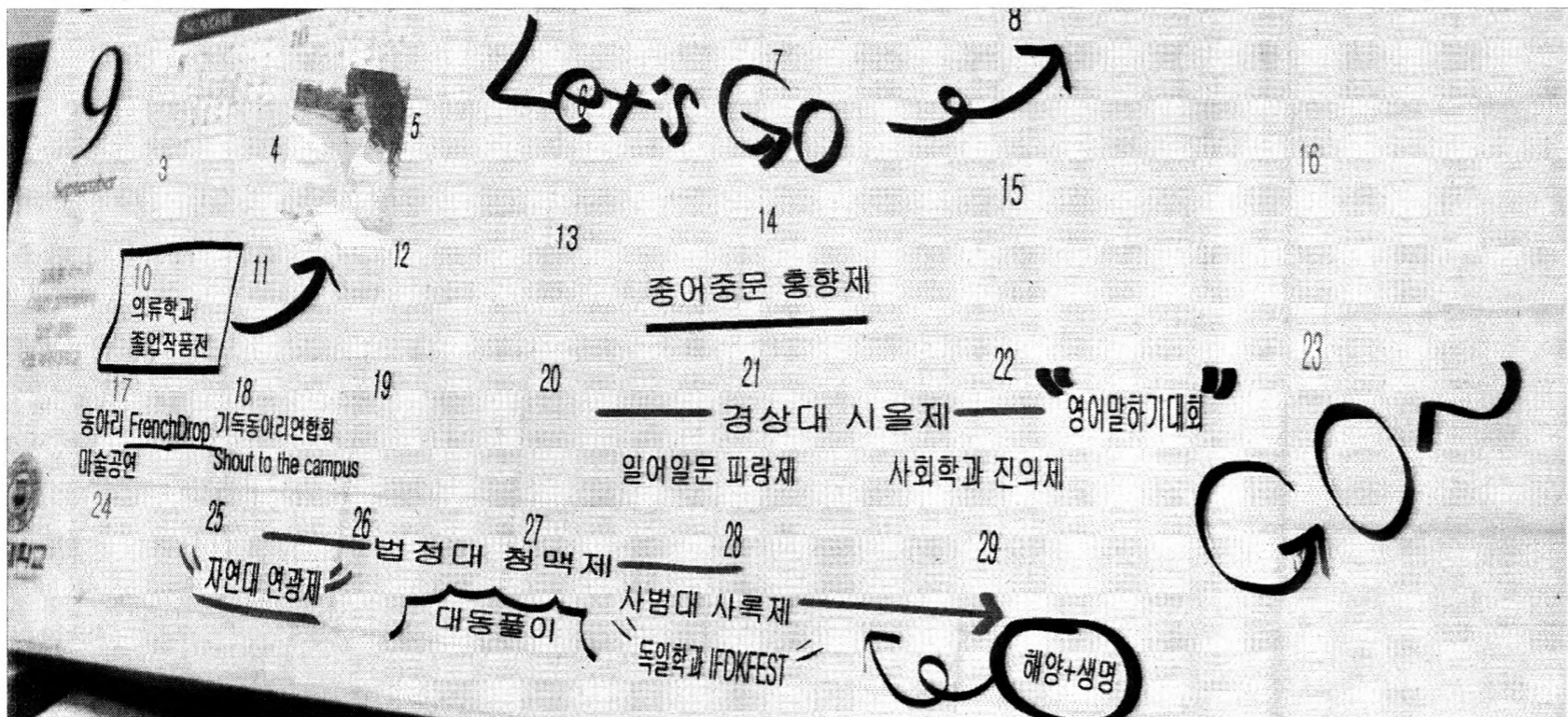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http://jejucci.korcham.net>
2. 방문접수 : 제주상공회의소 (690-029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블럭 1롯데)
3. 우편접수 : 원서교부처에서 원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수험료(우체국소액환), 사진과 함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주상공회의소로 발송

◇무대 위 학생들

학생들 끼 가득한 축제 '구경 와요'

각 단과대·동아리 공연 오는 20일부터 풍성



화려한 조명 아래 유명한 배우들의 무대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무대의 커튼이 열린다.

'아리대동제' 못지 않은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축제. 각 단과대와 동아리인들의 축제가 시작된다. 방학부터 그 날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학생들. 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높은 가을 하늘보다 더 높고 크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축제. 그 축제의 매력 속으로 빠져본다.

#1. 다들 참가하세요.

경상대 축제인 시울제에서는 '우리 것에 대한 상상예찬'을 개최한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구호 아래 국산 담배 케이스를 이용해 창작 조형물을

만드는 대회다. 시울제 기간인 20~21일까지 경상대 1·2호관에 전시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조형물이 명예의 1등을 차지하게 된다.

또 일어일본학과와 '일본어가요제'를 시작으로 법정대의 청맥제 가요제, 사범대의 사록제 가요제, 해양+생명 가요제 등 단과대별 가요제가 열린다.

이 밖에 경상대 시울제의 주차대회, 요구르트·팩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해양대의 '도전 잠수왕', 생명대의 '닭잡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공부에 지쳐있는 당신, 각 단과대 축제에 떠나라.

#2. 모다정 놀아봅시다.

오는 26~27일 이틀간 열리는 동아리인들의 축제 '모다정 대동풀이'. 동아

리인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라. 동아리인뿐만 아니라 제주대 학생이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축제의 첫날인 26일에는 우리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전통혼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우리 기악 속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혼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옛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전통혼례 뿐만 아니라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 역시 즐길 수 있다.

'너 나와!' 오는 26일 저녁 6시 30분 마음 속 깊이 숨겨왔던 말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됐다. 그동안 친구나 선배 등에게 섭섭했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신청하자.

축제라고 해서 놀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다. 이번 대동풀이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들 즉, FTA와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많이 마련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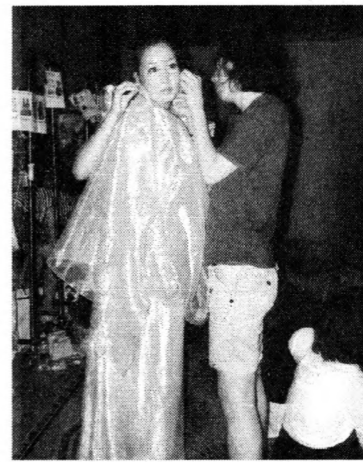
김용기(생명과학 4)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며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rudwn1421@cheju.ac.kr

◇무대 뒤 학생들 - 의류학과 졸업작품전

화려함 속에 감춰진

땀과 열정을 보다



모델들이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화려한 무대 위에 오른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그들은 더 당당하게 위장을 한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모습이 전부 아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그들의 무대 뒤 모습을 보기 위해 지난 10일 열린 의류학과 학생들의 9번째 졸업작품전을 찾았다.

"의상 다 챙겼어?" 무대에 오르기 30분 전, 졸업작품전을 준비한 의류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옷이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옷을 확인하고 마지막 점검을 한다. 모델들 역시 긴장되는지 위경 연습을 하고 심호흡을 한다.

무대에 오르기 5분 전, 마지막으 의류학과 학생들과 모델들이 '화이팅'을 외친다.

"지금부터 제9회 의류학과 졸업작품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졸업작품전이 시작되고 언

제 그랬다는 듯이 무대에 오른 모델들은 누구보다 멋진 모습을 선보인다. 무대 뒤 학생들은 스크린을 통해 무대를 지켜본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옷이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다들 긴장한 모습이다.

모델들이 자신의 차례가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는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무대인만큼 금방 돌아와 자신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신이 없다. 온 몸은 땀으로 뒤범벅되고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쇼가 마무리 됐다. 만족 반, 아쉬움 반을 뒤로 하고 모델들과 의류학과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마치고 내려온 학생들과 모델들은 이제야 숨을 고른다.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무대 앞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소리에 춤도 춘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쇼가 끝나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번 졸업작품전에 참가한 김상영(의류 4) 학생은 "마치 수능 시험을 본 듯한 기분이다"며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졸업작품전을 통해 다 보여준 것 같아 시원스럽다"고 말했다.

쇼가 끝난 후 관객들은 돌아가고 의류학과 학생들과 모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빈 무대를 바라본다. 그리고 한 번 더 남아 있는 패션쇼를 위해 다시 한 번 파이팅을 외친다.

이경주 기자 rudwn1421@cheju.ac.kr

내 인생의 스페셜

'내 인생의 스페셜'은 독자 여러분의 공간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영화·음악·공연 등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나만의 책·영화·음악·공연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숨은 제주 찾기 3

돌하르방 공원

'돌하르방이 살아 숨 쉬네' 평화기운도 가득

구멍 송송, 푹 튀어나온 눈과 뿔뿔한 코, 꼭 다문 입.

제주의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을 색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내 도민의 시선을 끌고 있는 공원이 있다. 그 곳은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돌하르방 공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제주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연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이 평화는 아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랑이나 우정도 평화라고 할 수 있다. 돌하르방 공원은 이러한 평화의 의미를 돌하르방으로 표현한 곳이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마치 새로운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평소 알고 있던 돌하르방의 모습이 아닌 사랑을 전달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다양한 모습의 돌하르방들이 관람객을 반긴다.

지난해 10월에 개장한 돌하르방 공원은 현존하는 48종류의 돌하르방에서부터 새로 창작된 돌하르방까지 다양한 돌하르방들로 볼거리가 풍성하다.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을 원형 크기로 재현해 놓았는가 하면 돌하르방의 기능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돌하르방들도 전시돼 있다.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돌하르방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돌하르방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꽃을 들고 있는 돌하르방과 포옹하는



돌하르방, 새와 돌하르방, 돌하르방 음악대 등 개성이 넘치는 돌하르방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평화를 이야기한다.

새의 동지를 받쳐주고 뿔뿔한 눈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하트를 그리며 사랑을 표현하고, 넓은 품으로 관람객들을 안아주는 돌하르방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예술가 50이 만들어 낸 이 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작업을 손으로 직접 했다고 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제주다운 공원을

을 만들기 위해 젊은 예술가들은 오늘도 스케치를 하고 돌하르방을 만든다.

돌하르방 공원은 하루 평균 약 200여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간다.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돌하르방들에 둘러싸여서인지 관람객들은 금세 제주의 매력에 빠져든다.

돌하르방 공원의 휴식을 따라 돌하르방과 평화를 이야기하다보면 체험학습장에 이르게 된다. 조물조물 흙을 빚어 내면의 돌하르방을 만들고, 스탬프를 찍는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연, 문화, 예술, 평화가 공존하는 돌하르방 공원. 다양한 모습의 돌하르방들이 전해주는 평화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이경주 기자 rudwn1421@cheju.ac.kr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 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틸러

지킬 앤 하이드

처음 이 작품을 알게 된 것은 작년 이맘때 쯤이다. 한 방송국 교양프로그램을 보다 '지킬 앤 하이드'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게 됐고,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에 흥미가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1990년 미국에서 초연을 가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는 유망 그룹 Skid Low의 세바스찬 바흐, 데

이빗 하셀호프 같은 유명스타들이 공연할 정도로 인기 작품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7월에 국내 공연을 시작해 지금까지 100여회 이상 공연할 정도로 인기있는 작품이다.

'지킬 앤 하이드'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주인공 헨리 지킬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다. 그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다.

하지만 마지막 임상실험을 하는 단계에서 병원 이사의 반대를 뚫지 못하고 실패에 빠진다. 그런 그를 옆에서 도우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왓슨, 약혼자인 엠마가 있지만 지킬은 연구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맘이 편치 못하다.

그러다 그는 임상실험을 자신에게 하게 되고 그는 결국 자신만의 또 하나의 인격 하이드를 만들어내게 된다. 어느날 술집에서 알게 된 루시란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루시는 상체를 치료받으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하이드라 말하고 지킬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한편 루시는 자신을 술집여자 아닌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지킬에게 사랑을 느낀다. 하이드는 자신의 연구를 방해하는 이사회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하고 도시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점점 하이드가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지킬은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안절부절 하지 못한다. 그런 그를 헌신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엠마.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지킬은 루시에게 하이드를 피해 런던을 떠나도록 부탁하지만 하이드는 결국 루시를 죽임으로 몰고 간다. 마침내 지킬은 엠마와의 결혼식에서 하이드로 변해 엠마마저 죽여버리지만 엠

마는 침착하게 내면 속 지킬을 불러낸다. 지킬은 결국 엠마를 지키기 위해 친구인 왓슨의 칼에 뛰어들고 지킬은 엠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지킬 앤 하이드'의 관련 자료들을 통해 한 번쯤은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가다림 끝에 시작된 공연.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몰이를 했다는 명성이 거짓말이 아닌 듯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 춤이 모두 나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을 보기 전에 봐두었던 미국버전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엠마와 루시가 지킬을 연모하는 모습으로 부르는 'In His Eyes'가 울려 퍼질 때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고, 조송우씨가 지킬과 하이드를 한꺼번에 연기하며 부르는 Confrontation에서 절정에 치달았다. 마지막에 엠마의 품에서 지킬이 숨을 거둘 때 장면에 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2시간의 공연을 마쳤다. 오페라 극장에서 전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지킬 앤 하이드의 또 하나의 묘미는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특히 'This is the Moment' 'Someone like you' 'Once upon a Dream' 'In His Eyes' 등의 노래는 들으면 들수록 뮤지컬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명곡들이다.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제주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언젠가 제주에서 공연을 한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 들기를 간절히 바라바다.

류재필(철학 2)

무론유설

독서는 자아완성의 지름길



송성희(독일학과 교수)

끝이 없을 것 같은 여정도 공부
니를 빼고 이제 독서의 계절이 왔
다.

새삼스럽게 독서를 거론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독
서는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이
기에 그만큼 더 폭 넓게 삶을 경
험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기에
독서는 연령을 막론하고 권장되고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 교육풍토에 조
기영어교육 열풍까지 가세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 분야
에 치우치지 않는 폭넓은 독서가
가능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시기는
대학시절이다. 폭넓은 독서 경험
이 특히 대학시절에 강조되는 것
도 이 때문이다.

경험! 경험을 통한 학습! 이 말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경험
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
가 만들어져가기 때문이다.

최근의 신경과학에 의하면 인생
은 곧 뇌 신경세포의 연결패턴을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과
학은 이제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당신은 당신의 시
냅스들이다'는 소재목의 결론을
내리는 신경과학자의 책이 번역되
기도 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들은 1000조 개나 되는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는데, 이 시냅스의 전
기적 신호는 건널 수 없는 아주
미세한 틈새다. 외부세계에서 받
아들인 정보들은 화학적 신호라는
나뭇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는데,
시냅스 연결이란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이
용되는 나뭇배는 다리가 건설되지
만, 그렇지 않은 나뭇배는 잊혀지게
되듯이, 시냅스 연결을 통해 신경
세포의 연결패턴이 결정되는데,
이 연결패턴의 총합이 곧 한 개인
의 자아이다. 유전자 차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의 개
성이 그렇게도 다양한 것은 바로
이 연결패턴이 학습을 통해 후천
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
다.

이에 따르면 자아완성을 지향하
는 사람은 다양한 방면에서 가능
한 한 많은 두뇌활동을 요구하는
학습을 스스로에게 부과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시냅스에 다리를 건
설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직업에
업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사
귀고 다양한 독서를 하고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대학시
절에 특히 가능한 일이다. 직업훈
련을 일차적 목표로 삼지 않는 종
합대학교에서 전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교양과목을 중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사귀
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하
고, 다양한 독서 등 폭넓은 경험
이 가능한 대학시절은 자아를 완
성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 가능
성인 그대에게도 다양한 것은 바로
이 연결패턴이 학습을 통해 후천
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
다.

사설

대학행정서비스 갈수록 불친절

우리는 흔히 학생, 동문 등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
로는 우리대학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의 한
민원인들은 우리의 불친절에 넋더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은 지금 심한 불친절
중독증에 걸려 있다. 불친절이 곳곳에 만연
돼 오히려 당연시될 정도이고 이를 당한 사
람들도 불쾌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
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얼마전 대학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
된 글을 보자.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세 번
이상은 거쳐야 담당자와 연결된다고 하죠.
그뿐인가요. 전화를 돌려 줄 때도 '제 담당
이 아니네요' 하면서 전화를 돌린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리기 일쑤죠." 이 뿐만이 아니
다. 민원 관계로 대학을 방문한 사람 중에
는 불친절한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원당사자는 물론 단순한 부탁
을 받은 사람조차 불친절한 대우에 불쾌감
을 안고 돌아오기 일쑤다.

전화응대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전화
를 걸면 응대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무뚝뚝하게 응대하는 것은 보통이고
반대로 심문하듯이 꼬치꼬치 묻고는 담당자
가 없다고 잘라버린다고 한다. 전화를 걸거
나 직접 찾아간 민원인에게 공손하지 않은
은 물론 민원관계로 찾아간 학생을 우박지
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상의 우리대학
내의 불친절 유형들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
과하다.

우리대학의 내부 개혁과 외형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도 많은
도민과 민원인들이 '제주대 교직원들은 불
친절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이
미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
다. 특히 지자체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민원 친절을 강조하는 마당에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친절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
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친절이아말로
규정이나 제도 이전에 대학 교직원들의 의

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에는
일반직원 뿐만 아니라 교수, 조교,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모든 직원들이 친절해야 대학이 나아졌
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각 부서의 담당 직원에 대한 전화에
걸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전화를 불친절하
게 받는 교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를 확산시
키고 고객만족형 서비스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 교육이 이뤄져
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차제로 통일된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
는 '이리포럼' 과정에 친절과 봉사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민원교육 강화를 개설하고,
대학 내 '친절왕'을 선발하는 등 새로운 프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
내의 '친절 및 불친절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 부서별·단대별로 배포하여 현장교육
교재로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도 세웠으면
한다.

대학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일
목지않게 친절한 자세와 봉사정신을 통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이아말로 충분한 인적 인프라와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충분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아울러 친절은 대학
성장과 발전을 위한 무형의 자원이라는 인
식의 전환이다. 도민이나 민원인들이 우리
대학 교직원들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그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친절한 제주
대'의 이미지를 씻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를 대학 본부와 구성원들이 다함께 진지하
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선 대학 본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민원
부서나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교직원들도
자성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노력이 절실하
지 않을 수 없다.

돌하르방

여론수렴 없는 성명서 발표 '왜'

9월 1일,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학점포기제 시행이 공
표됐다.

5월 중에 하겠다던 '학점포기제
2차 설문조사'는 언제쯤 하려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참나 뒷통
수를 살짝 스친 듯한 공표였다.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탓일까
반응이 금방 나타났다. 재이수를
신청했던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재이수 보다는 학점포기를
선택했다. 학점포기제가 호응이
좋은 만큼 총학생회에 플러스 점
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한 만큼 플러스 점수
는 더 크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면에서 마
이너스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지난 5일 총학생회에서 제출한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에 대한 성명서'를 본 순간 마이
너스 점수가 광 찍혔다.

지난 5,6일자 제주지역 신문에

는 총학생회가 제출한 성명서 관
련기사가 실렸다. '대학생들도 제
주 LNG 발전소 건설에 적극 환
영', '제주대 총학생회, 조속한
LNG 발전소 건설 촉구' 등의 제
목으로 LNG 발전소에 대하여 진
심어린 환영을 표명하는 듯하다.
'취업난 해결', '지역발전' 등 구
호도 그럴싸하다.

그러나 일반 아라인들을 대표해
서 낸 성명서에 공급금이 생긴다.
성명서에 일반 아라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을까? 제주대 학생
들의 대표성을 가진 만큼 학생들
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성명서를 발
표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상반기 감사평가 결과를
뒤집어 보면 '2. 사업(행사) 감사
일반'의 내용에 '자치기구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의사수렴
과정은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차례에 걸친 중앙운영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 단대의 상

황을 파악, 논의하는 등 학교 발
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감사평가 결과가 올라가면 이번
성명서 제출 전에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와 충분한 학생 의사수렴 과
정을 거쳤을 것이다. 설마 감사평
가 전에는 의견 수렴을 잘하고 그
후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
거나 하지는 않았을 터.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
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찾아
봤다. 최근 9월 5일, 제2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부터 차근차
근 찾아냈다. 없다. 혹시나 잘못
찾았을까 여러 번 훑어 봤지만 성명
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성명서는 학생들
의 의견 수렴 없이 총학생회 자체
적으로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회
의록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감사
평가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등 성명서에 대한 의문이 든
다.

특히 지난 상반기 감사 결과에
스폰서 내역과 관련해 개인통장
사용, 스폰서 내역 미기재 등으로
벌점 3점을 받았던 탓에 의문은
피리에 피리를 물어 의심으로 변
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총운영위원회 때
총학생회장은 "하반기 정기 총운
영위원회 때 하반기에 쓰인 것까
지 최대한 모든 내역을 공개 하겠
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를 둘러싸고
있는 '돈'과 관련된 나쁜 소문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성명서에 대한
의문의 피리를 잘라냈으면 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만큼 성명서의 내용을 자
유게시판이나 총학생회 홈페이지
에 게시한다면 좀 더 투명성이 보
장될 것이다.

정선화 편집장

워크캠프를 다녀와서



양은정 (영어영문 4)

다양한 문화체험한 워크캠프 전세계 대학생들 어느새 친구

지금 생각해보니 워크캠프라는
어엿한 핑계를 대고 일상에서의
도피를 꿈꿨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달 동안의 일탈 이후,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 내가 이
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
화들을 체험하며 나를 시험해본
것도 많았고, 내 한계를 드러내거
도 했었다. 그렇기에 나도 모르는
새 더욱 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
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7월 1일, 한껏 부푼 마음을 갖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
했다. 하룻밤을 친구 집에서 묵
고 그 다음날 워크캠프장으로 떠
났다. 장시간의 기차여행 후, 해
가 저물 무렵 워크캠프 숙소로 도
착했다. 처음이라 캠프 친구들과
는 서먹서먹 했지만, 그 날 저녁
리더가 준비한 여러 게임들을 통
해 약간이나마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친해지려고 노
력했었다. 러시아에서 온 감수성
풍부한 문학소녀 Anna와 Evgenia,
터키 커피 Ayca와 Berkay,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는 동갑내기 에스

토니아 친구 Max와 Kirill, 이탈리
아 막강체력 GiuliaM, D, Martinam
Monica, 스페인에서 온 하루라도
장난을 안치고는 못 배기는 Jordi,
Javi, 매일 운동하던 슬로바키아
친구 Ivan, 착한 독일 리더 커피
Johannes, Angela, 새침떼기 벨기
에 소녀 Caroline, 그리고 정말 헬
이 되어주던 한국친구 Nayeon,
April, Sunny 등.

캠프 첫째 주에는 서로 경계를
하는지 그리 대화할 시간이 많지
는 않았다.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게임을 즐기는
등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
리고 첫째 주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감기로 앓았다. 작은 마을이
라서 그런지 작은 병원이 있었는
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편찮을거
리라며 약을 선물로 주셨고, 캠프
친구들도 계속 내 걱정을 해줘서
둘째 주부터는 나도 함께 농장 일
을 거들 수 있었다. 캠프 둘째 주
쉬는 날에는 호수가 근처로 자전
거를 타고 가서 당구게임도 하고,
친구들과의 수다가 더욱 많아졌

다. 거의 매일 밤이면 캠프 멤버
들이 준비해 온 노래를 들으며 가
볍게 맥주 한 잔씩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캠프 마
지막 주에는 끝이나는 아쉬움으로
인해 서로 편지도 많이 주고받았
고, 헤어지기 전 날에는 잠을 청
하러 Caroline, 그리고 정말 헬
이 되어주던 한국친구 Nayeon,
April, Sunny 등.

워크캠프 이후 체코, 오스트리
아를 여행하며 젊음을 만끽했고,
한 달 동안 독일 친구네 집에 머
무르면서 독일은 느꼈다. 그 한
달 동안 캠프 멤버들이 너무나 그
리웠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친구
들에게 메일을 쓸 생각이다. 그리
고 지난 20일 동안 있었던 우리들
만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영원
히 간직하고 싶다.



김상범 (해양산업전공 3)

피부색 다르지만 젊음은 하나 워크캠프 통해 유럽문화 이해

들의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었
다.

우리가 일할 장소와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서히
워크캠프 속으로 들어갔다. 하루
6시간의 일과 너무나 힘들고 철저
한 일과는 너무나 '왜 이곳에 와
서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 하지만 일이 힘
든 만큼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더
욱 없어지는 것 같았고, 서로의
가식 또한 빨리 사라지는 것 같
았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을사람들 전체가
정말 마음속으로 환영한다는 것
을 느꼈고 점차 프랑스 시골 마을
의 한 청년이 되는듯 한 생각까지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시간
에 마을회관을 찾아서 해와 함께,
침대를 보았고, 음식들을 가져다 줬
으며, 사워하러 방문했을 때 따뜻한
게 반겨줬다. 캠프참가자들은 힘
든 일정에도 삶은 내색 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배려해 주었고, 서

로를 챙겨주려고 노력했다.

프랑스 인사법(불에 키스하는
인사이 좋아질 즈음, 우리의 캠프
는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
다.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자 참
가한 캠프.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전세계
의 젊은이들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약간의 표현방식과 모습이 다
를 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론 문화의 차이로 그들의 호
의적인 태도가 나에게 불쾌감으
로 다가온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을 알았을 때 그 불쾌감은 금
새 사라졌다.

3주간의 워크캠프는 유럽에 대
한 이해의 창을 열어준 소중한 기
회였고, 프랑스 시골 마을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준 귀중한
경험이 됐다. 지금 나는 열렬한
워크캠프 후원자이다. 내가 만나
는 이마다 워크캠프의 존재를 알
리고, 참가하라는 독려를 아끼지
않는다.

모리랑타이

27회

당첨번호 00000

성?

아~

Happy Together 이란대성축제

수백여명

봉이예요~

Yeah

홍익대학교

파라제

시울제

청맥제

사록제

불거리가 풍성한 제주도로 오세요~

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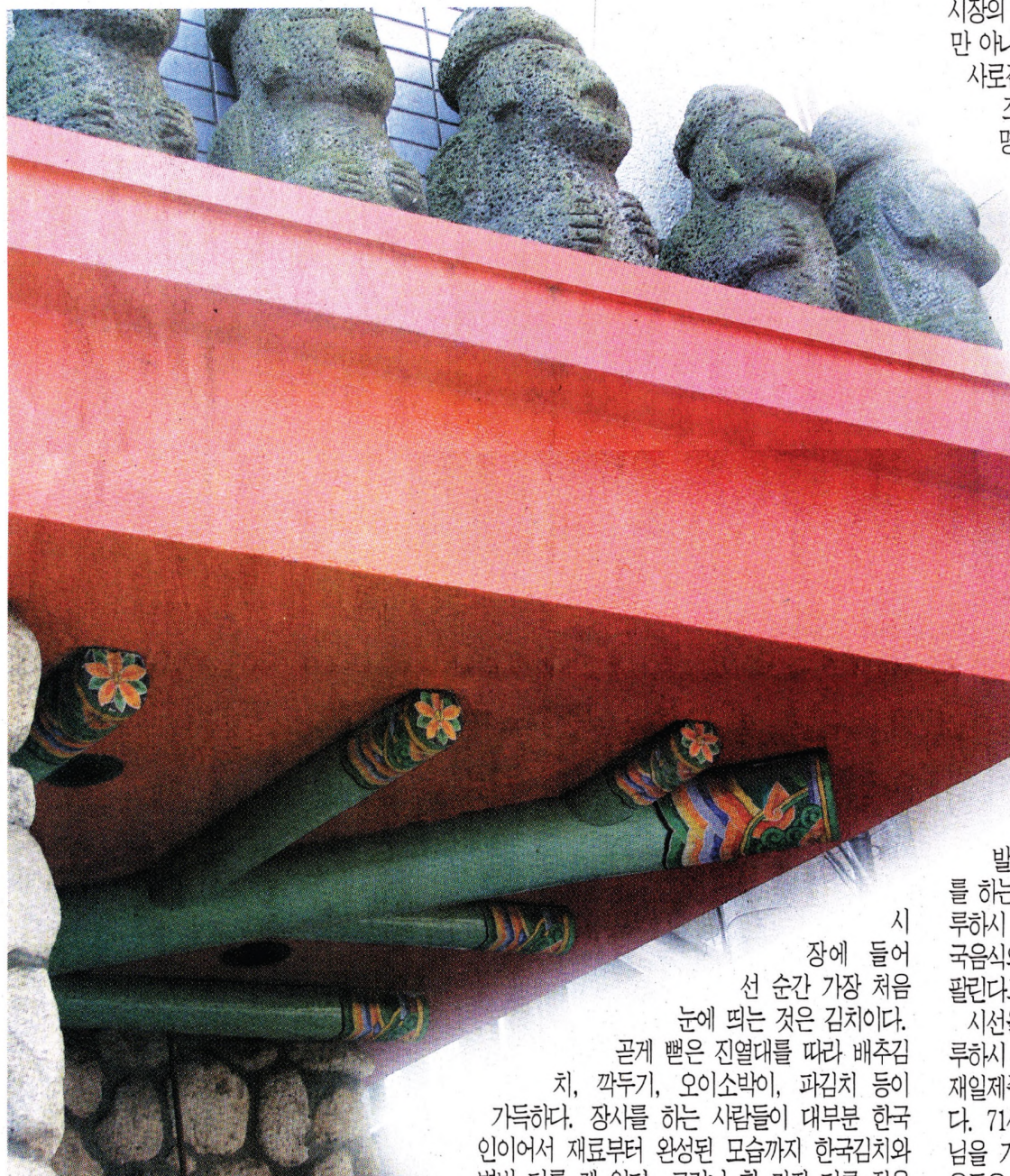
재일제주인 기획연재
(오사카편)

- ① 재일제주인의 도일 역사
- ② 한인 타운 속 제주
- ③ 재일제주인의 관혼상제
- ④ 재일제주인 3·4세대
- ⑤ 제주대와 재일제주인
- ⑥ 재일제주인센터
- ⑦ 재일제주인의 사회
- ⑧ 재일제주인 삶의 명암
- ⑨ 제주도에 남아 있는 재일제주인의 흔적
- ⑩ 재일제주인의 미래



제주 전통 여전한 오사카 쓰루하시 시장

일본인 발길 잦아... 재일제주인 삶의 애환 '물씬'



시장의 김치도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손맛도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긴 의자에 3~4명의 사람들이 붙어 앉아 뜨끈뜨끈한 부침개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즉석에서 부쳐진 뜨끈뜨끈한 부침개들이 가격과 재료가 적힌 종이 아래 종류별로 쌓여 있다. 각종 야채를 넣은 야채부침개와 김치부침개, 파 부침개 뿐만 아니라 콩나물과 김치를 넣어 만든 콩나물김치전과 잡채를 넣은 잡채전 등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 퓨전화시킨 부침개도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보다 일본인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밖에도 막걸리, 김, 젓갈, 고추장, 미역, 고추장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한글 상표로 된 물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부산을 출발한 배로 일본에 들어오거나 보파리 장사를 하는 분들에 의해 전해진다. 이 물건들은 쓰루하시 시장 근처에 사는 교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음식의 매력을 느낀 일본인들을 상대로 많이 팔린다고 한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니 '제주'가 보인다. 쓰루하시 시장을 '제주 동문 시장'이라고 표현한 재일제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인다. 71세 할머니가 햇빛 아래 옥돔을 말리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이곳 옥돔은 일본에서 잡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재일제주인에게 팔린다. 옛 제사 문화를 변형없이 계승해온 재일제주인들에게 옥돔은 제사의 필수품이다.

어렵듯이 들리는 한국말에 지나던 발걸음을 멈춰서니 재일교포 할머니가 운영하는 한복집 앞이다. 부산이 고향인 할머니는 일본으로 건너와 쓰루하시 시장에 자리를 잡고 바느질 솜씨를 살려 한복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다. 심플하고 단아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한국과 달

리 일본에서는 밝고 화려한 디자인의 한복이 많다.

할머니는 "재일교포들은 한복을 결혼식이나 신년회, 돌 때 주로 입는다"며 "추석이나 설날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색색의 실로 수놓은 돌 복이 진열된 위에 '대여'라는 말이 붙어 있어 할머니의 말을 증명했다.

쓰루하시 시장 속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한국 시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쓰루하시 시장을 찾는 재일교포들의 수가 많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제사 때 쓰는 제기나 음식들은 옛모습 그대로여서 사듯 놀라웠다. 한국에서 점점 간소화하고 있는 제사, 성인식, 명절 등의 전통의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발견은 편리함을 쫓는 한국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쓰루하시 시장 서쪽에는 불고기 집이 몰려 있다. 재일교포들에 의해 형성된 이곳은 불고기집하면 '쓰루하시'라고 연상될 정도로 유명하다. 불고기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불고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점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게들이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본점과 지점 등 3개의 가게를 3세대 운영하고 있다는 불고기 전문점에는 입구에서부터 크고 작은 돌하르방들이 장식돼 있어 멀리서도 제주도를 연상하게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골목을 걸다보면 제주음식을 파는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제주음식을 쉽게 접할 수도 있다.

쓰루하시 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동안 화려함과 친숙함에 눈

이 고정되고 반가운 제주어에 귀가 쫓겨났다. 역시 쓰루하시의 '한국시장'이었고 또한 제주시장이었다. 타향살이를 하며 열심히 일하는 교포들의 강인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니 말이다. 또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손맛과 솜씨 등 비록 일본에 있지만 한국인들의 긍지를 살려 살아가는 모습이 함께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한국의 문화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기 기자 sun@cheju.ac.kr



시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금중이 생긴다. '이곳이 어디더라?'. 금방 '쓰루하시 시장'이라는 답이 나오지만 고개는 한참을 가우뚱거리다. 거미줄처럼 복잡한 시장 속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린다. 한국시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 펼쳐져 일본이라는 것을 잠시 잊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낯설기 보다는 친숙함과 익숙함이 가득하다.



한국문화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쓰루하시 시장에 제주도 전통떡을 맛볼 수 있는 가게가 있다. 그곳은 바로 제주출신 재일교포 2세 김능우씨 부부가 운영하는 떡집.

진열된 많은 떡 가운데서도 보름달 모양의 제주송편과 지름떡, 은절미, 무지개떡, 시루떡, 보

한국 위상 높아질수록 재일제주인 위상도 달라져

인터뷰

재일교포 2세 김능우씨 부부

"자녀들 일본인과의 결혼, 막기 어렵다"

리쌍이 유독 미각을 자극한다.

쓰루하시 시장 속 유일한 떡집에서 푸근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김능우씨와 그의 부인 왕갑연씨를 만났다.

재일제주인 2세인 그는 한국학교인 건국 학교를 나왔고 부인 왕갑연씨는 조종련 소속 민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그래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어로 대화한다.

고향이 경상도인 그의 부인이 어떻게 제주 전통떡을 만들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솜씨 좋은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께 배운 것들이 거

의 대부분 제주도 방식인 것 같다"고 말한다. 집안 식생활은 일본생활에 거의 대부분 맞춰졌지만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명절을 음력으로 하는 것, 성묘와 제사 방식 등은 제주식이라고 한다.

3명의 자식이 있다는 그는 "아이들 모두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며 "자식들은 모두 일반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배운다 해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3명의 아들 중 첫째 아들은 일본여자와 결혼을 했다"며 "내심 한국여자(재일교포)와 결혼하길 원했지만 아들의 의견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존중해줬다"고 덧붙였다. 재일교포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같은 재일교포끼리 결혼을 하길 바라는 생각이 많지만 최근에는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해 자식들의 의사에 맡기는 편이

라고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를 방문한다는 그는 "제주도 행원에 산소가 있어 성묘를 하러 간다"며 "예전의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 좋았지만 이제는 너무 개발에만 치중해 예전의 제주를 느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재일교포에 대한 대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소수의 재일교포들 때문에 정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재일교포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한다. 쓰루하시에 있는 짜장코를 비롯해 근처 이마자도 신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최근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온 비행기세대들이다. "쓰루

하시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재일교포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며 돈을 벌지만, 비행기세대들은 대다수가 간단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며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성을 죽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술집을 이용하는 사람도 비행기세대인 재일교포인들이나 관광오는 한국인들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를 비롯해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에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는 제주만의 독특함과 전통을 꾸준히 계승해나가는 힘을 강조한다.

타향에서 제주전통떡을 묵묵히 만들고 있는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내내 제주문화의 소중함이 새삼 절실하게 가슴에 일렁였다.

강은정기자 kangej@cheju.ac.kr